

일상툰 장르의 1인칭 서사 특성 연구

A Study on the First-Person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ailytoon

류유희^{1*}, 백종인², 김은총³

Yu-hee Ryu^{1*}, Jong-In Baek², Eunchong Kim³

요약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 ‘일상’ 장르에 나타난 1인칭 서사 구조와 서사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상툰이 형성하는 감정 서사와 사회적 의미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웹툰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일상’ 장르는 사업체와 창작자 모두가 향후 기획 및 제작을 희망하는 주요 분야로 부상하고 있으며, 실제 플랫폼 내 연재 작품 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25년 현재 네이버웹툰에서 연재 중이거나 같은 해에 종료된 일상툰 34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각 작품의 시점·서사 내용·작가의 자기서사적 표현 양상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작품의 약 94%가 1인칭 시점을 채택하고 있었으며, 이는 작가가 곧 화자이자 등장인물로 등장하는 자기재현적 구조를 보여준다. 일상툰의 1인칭 서사는 단순한 일상 기록을 넘어, 작가의 감정과 독자의 공감, 개인의 직업적 정체성 등을 드러내며 유머와 자기 풍자를 결합한다. 본 연구는 일상툰이 개인의 경험을 사회적 감정으로 변환하는 디지털 감정 서사의 새로운 양식을 제시하며, 향후 웹툰의 자기서사 연구 및 산업적 확장 논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핵심어 : 일상툰, 1인칭 시점, 1인칭 서사, 웹툰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rst-person narrative structure and narrative characteristics of the Dailytoon genre on Naver Webtoon, in order to examine how Dailytoons construct emotional narratives and produce social meanings. According to the Webtoon Industry Survey Report, the ‘daily life’ genre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eferred fields for future planning and production among both creators and companies, and the number of serialized works within this genre continues to grow. Based on this trend, the study selected 34 Dailytoons that were either ongoing or completed in 2025 and conducted a qualitative textual analysis focusing on narrative perspective, content, and modes of self-representation by the authors. The analysis revealed that approximately 94% of the examined works employed a first-person point of

1 Department Manhwa-Webtoon,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Sejong, Korea [Professor]
e-mail: ryh9001@gw.pro.ac.kr (Corresponding author)

2 Department Manhwa-Webtoon,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Sejong, Korea [Professor]
e-mail: dpecialji@gmail.com

3 Department Manhwa-Webtoon, Korea University of Media Arts, Sejong, Korea [Professor]
e-mail: mapagohan@gw.pro.ac.kr

* 본 연구는 한국영상대학교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비로 지원 받은 연구입니다.

Received(November 30, 2025), Review Result(1st: December 10, 2025), Accepted(December 12, 2025), Published(December 31, 2025)



© 2025 The Authors. Published by NCIS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licensed under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License.
To view a copy of this license, visit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view, wherein the author simultaneously serves as both narrator and protagonist, thereby constructing a self-representational narrative structure. The first-person narrative in Dailytoons extends beyond mere autobiographical documentation, expressing the author's emotions, occupational identity, and humor through self-reflective irony. It mediates empathy between the author and readers while transforming private experiences into shared affective narratives. Ultimately, this study identifies Dailytoons as a distinctive form of digital affective narrative that converts individual experiences into collective emotions. By revealing how the first-person narrative operates as a core mechanism of emotional authenticity and social resonance, this research provides a theoretical foundation for future studies on self-narrative structures and the industrial expansion of webtoon storytelling.

Keyword : Dailytoon, first-person point of view, first-person narrative, webtoon

1. 서론

현재 웹툰은 개인의 일상과 감정을 기록하는 주요 서사 매체로 자리잡고 있다. 플랫폼에 연재되는 일상툰 뿐 아니라 아마추어 작가 또는 개인 SNS를 통해 연재되는 많은 웹툰들이 작가 본인의 일상을 그려내며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일상툰은 타 장르와는 달리 서사적 갈등이나 영웅적 사건보다는 작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서사적 특성을 보인다. 일상툰에 대한 연구 또한 대부분 자전적 서사 및 공감 서사의 측면에서 이루어지며 주로 감정 표현 양상이나 장르적 대중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업체가 희망하는 향후 기획/제작/유통 희망하는 장르에서 일상은 1+2+3순위 8.8%를 차지하며 창작자들 또한 19.5%가 향후 일상 장르 작품을 기획 및 제작하기를 희망한다 조사되었다. 판타지, 소년물, 무협과 더불어 유망한 장르로 꼽히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선호의 배경에는 ‘개인이 창작자로 진입하기 쉬운 구조’, ‘업체 간 경쟁이 적은 시장 환경’, ‘짧은 호흡의 콘텐츠를 선호하는 독자층의 확대’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 제작자와 창작자 양측에서 모두 일상 서사에 대한 수요가 상승세임을 보여준다.

실제 플랫폼 데이터 또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데 2025년 11월 기준, 네이버웹툰의 일상 해시태그로 분류된 작품은 총 207편이며, 브랜드웹툰 및 이벤트성 단편을 제외하면 138편이 정규 연재작으로 확인된다. 2025년에 연재 중이거나 2025년 내 연재가 종료된 작품은 34편(약 24.6%)으로, 이는 한 해 동안 ‘일상’ 장르의 활발한 창작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이처럼 웹툰 산업과 창작자 집단 모두에서 일상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이 장르의 서사적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인칭 시점과 서사 구조를 중심으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에서 2025년 기준으로 연재 중이거나 최근 완결된 34편의 대표적 일상툰을 대상으로, 그 서사 구조와 시점의 특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일상툰 작품에서 드러나는 1인칭 시점의 서사의 특성과 작가-독자 간 서사적 관계를 분석하고 일상툰이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플랫폼 시대의 공감 서사 구조로 진화하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2. 이론적 연구

2.1 일상툰의 정의 및 특성

일상툰은 1990년대 후반 웹툰의 초기형태 발생과 함께 시작되어 개인 홈페이지에 연재되었던 <스노우캣>(1998), <마린블루스>(2001), <파페포포 메모리즈>(2002) 등과 같은 작품과 그 궤를 함께 한다. 인터넷에 연재되는 일종의 그림 일기의 형태였던 해당 작품들은 무료로 누구나 접근하기 쉽다는 강점과 함께 빠르게 인기를 얻었다.

2003년 다음 만화 속 세상을 통해 웹툰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웹툰 플랫폼에는 짝막한 형태에 주로 작가를 주인공으로 한 에피소드 형식의 생활 이야기를 코믹하게 다룬 작품이 플랫폼의 성장을 함께 하였다. 네이버의 대표적 일상툰인 <넓이 사는 이야기>(2004), <마음의 소리>(2006)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두 작품 모두 큰 인기에 힘입어 <넓이 사는 이야기>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마음의 소리>는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의 장기 연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이 꾸준히 존재하였기에 일상툰에 대한 논의 또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김정우는 일상툰을 생활형 웹툰으로 해석하며 1, 2, 3세대를 구분하였으며 이들 모두 현실을 기반으로 서사를 이끌어가며 서사 내에 개그 코드 및 정보 전달 등의 다중 복합적인 결합을 이루어 오며 끊임없는 변화를 보여줬다 설명하였다 [2]. 일상툰은 이와 같이 변화하고 발전하며 ‘생활형 웹툰’, ‘생활툰’, ‘다이어리툰’ 등의 명칭으로 불리었으며 [3], 현재는 대부분 ‘일상툰’이라는 명칭으로 정리되었다.

일상툰은 드라마틱한 사건보다는 소소한 일상을 담아 유쾌하고 긍정적이며 해학적 웃음을 전달한다. 또한 동시대 독자들의 보편적 감수성을 형성하며 당대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독자와의 상호작용을 유발하며 작가와 독자 간 공감도를 높인다 [4]. 이와 같은 특징으로 인해 일상툰과 같은 작품은 주로 실제에 기반한 캐릭터를 등장시키며 시간적 또는 공간적 배경 또한 대부분 실제에 기반한다. 또한 실제 일어난 사건을 스토리로 전환하여 서사를 구성해 나간다.

웹툰의 시작과 함께 발생한 일상툰은 오랜 기간 독자와 공감하며 다양한 가치를 작품 안에 담아내었다. 류철균과 이지영은 일상툰을 ‘작은 이야기 담론의 형성’의 장으로써 재고하며, 일상툰이 개인적 미시 서사의 활발한 움직임을 이끌며 일상적 개인의 가치를 복원한다 설명하였다 [5]. 김예지는 일상툰의 감정구조 변화에 대해 다루며 이에 대한 사회의 복합적 요인을 분석했다. 일상툰은 더 이상 사적 이야기를 다룬 일기가 아닌 만화상품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였으며 실존 인물의 실생활을 엿볼 수 있는 ‘리얼리티 스펙터클’로써 대중 앞에 전시되었음을 설명하였다 [6]. 김지연은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일상툰을 중심으로 동시대의 여성들에게 전달하는 공감과 독자들이 자기성찰적 반응을 탐구하였다. 이를 통해 여성 독자들이 유사 경험이나 심도 있는 감상을 남기며

작품 속에서 더 깊은 유대감으로 묶이며 활발한 교류 현상을 보임을 설명하였다 [7].

작가의 개인사를 담은 만화 일기로 시작한 일상툰은 최근 작가와 독자 간 공감을 기반으로 동시대의 가치관의 변화를 다룸과 동시에 웃음과 감정의 교류를 함께 선사한다. 서사적 재미 외에 독자들 현재를 고민하게 하며 가벼운 그림체이나 그 무게감의 가치가 확장되고 있다.

2.2 일상툰 서사와 시점

모든 서사에는 사건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화자가 존재하고, 화자의 시점은 사건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화자가 사건을 어떠한 위치에서 독자를 향해 이야기하느냐를 뜻한다. 1인칭 시점은 화자를 ‘나’로 표현하며 독자가 주인공과 화자를 동일한 존재로 인식하게 하며, 2인칭 시점은 화자를 ‘너’ 혹은 ‘당신’으로 표현하며, 이야기 속에서 화자가 다른 인물을 지칭할 때 활용하는 시점이다. 3인칭 시점은 화자를 ‘그’ 혹은 ‘그녀’ 그리고 특정 인물의 이름으로 표현하며, 화자가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 속 상황을 모두 파악하고 이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2인칭 시점은 1인칭, 3인칭 시점과 달리 이야기 속에서 특정 인물을 지칭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잘 활용되지 않는다 [8].

1인칭 시점은 독자를 이야기 속 등장인물에 집중시키며, 1인칭 시점의 이야기를 읽은 독자는 이야기 속 주인공의 행동과 감정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인다. 또한 등장인물의 심리 상태에 공감하며 내면화한다 [8][9]. 주로 1인칭 시점이 3인칭 시점보다 화자와 독자의 동일시를 더욱 유발한다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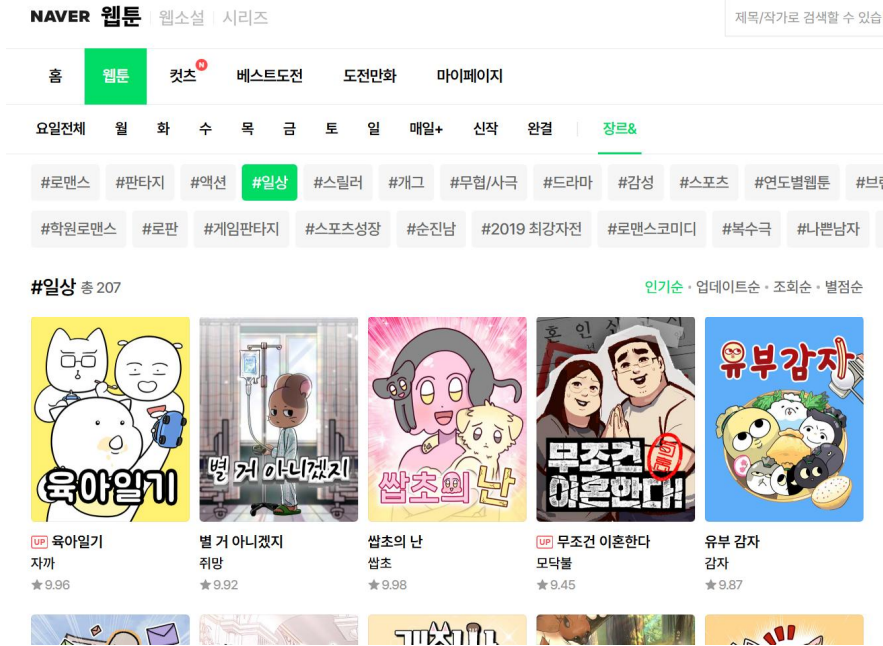
일상툰의 화자는 대부분 ‘나’이며 작가 자신이다. 일상툰은 주인공이 작가 자신이면서 배경 또한 작가의 일상적 시공간이나 현실 세계라는 공통점을 가지며, 소재 또한 작가의 체험과 밀접하며, 자아의 감각적인 감수성과 신변잡사의 기록, 내면세계의 고백을 다루며 개인적인 생활 체험과 내면 의식을 그려낸다 [5]. 일상적 경험을 재현하고 전달하는 주인공이자 서술자가 하나의 캐릭터로 작품에 등장하며 이 캐릭터가 실제 저자와 동일시되며 자기재현적 방식의 서사 형식을 보인다. 캐릭터와 저자의 동일시 과정을 통해 이야기의 실제성과 진실성에 대한 독자의 신뢰가 형성된다 [10]. 이와 같이 일상툰은 실존하는 ‘나’를 웹툰 플랫폼을 거쳐 서사적으로 생산하며, ‘나’의 동일시의 환영구조는 창작의 중요한 기반으로 이때 만들어내는 자기 형상화의 양상은 필연적으로 작가의 정체성과 연관된 정치성을 구동시킨다 [11].

즉 일상툰은 주로 화자의 1인칭 시점을 기반으로 화자이자 작가의 실제 이야기 및 감정 등을 서술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재현하고 정체성을 드러내며 독자들과 연결된다. 이러한 1인칭 시점에 기반하여 독자는 작품에 더욱 집중하고 몰입하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연재되고 있는 작품들이 실제 1인칭 서사 형태를 차용하는지 연구하여 작가의 자기서사적 표현 방식과 독자와의 공감 서사로 연결되는 방식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3. 네이버웹툰의 ‘일상툰’ 시점 및 서사 분석

본 연구에서는 2025년 11월 연재 중인 작품과 2025년 내에 연재 종료 또는 휴재된 네이버웹툰의 일상툰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1]과 같이 네이버웹툰은 ‘장르&’ 메뉴를 통해 총 25가지의 해시태그로 장르가 구분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일상툰 장르를 선별하였다. 해당 해시태그 구분을 통해 네이버에서 ‘일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작품은 총 207개였으며 서사를 기반으로 하였으나 일상이라는 태그가 함께 붙어있는 몇 가지 사례를 제외하였다. 최종 2025년 11월 기준으로 총 34건의 일상툰이 연재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대상으로 작품의 시점을 분석하고 각 작품의 내용을 정리하여 [표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그림 1] 네이버웹툰은 ‘일상툰’ 장르 구분

[Fig. 1] Genre Classification Screen of ‘Dailytoon’ on Naver Webtoon

[표 1] 네이버웹툰의 ‘일상툰’ 목록 (2025년 11월 기준)

[Table 1] Naver Webtoon's ‘Dailytoon’ list (as of November 2025)

	제목	작가명	시점	주인공 이름	내용	비고
1	육아일기	자까	1인칭	자까	자까 작가가 직접 겪는 육아와 가정 생활을 만화로 기록한 육아 에세이	연재 중
2	별 거 아니겠지	취망	1인칭	취망	작가 본인의 투병기	연재 중
3	쌈초의 난	쌈초	1인칭	쌈초	작가의 개그 일상툰	연재 중
4	유부감자	감자	1인칭	감자	유부녀가 된 감자작가의 부부생활과 작가의 일상을 기록한 웹툰	연재 중

5	경경수의 개발만화	경경수	1인칭	경경수	개발자 작가의 회사생활과 업무를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6	구아는 신입	구아	1인칭	구아	사회초년생 작가의 직장인 생활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7	월유메리미	마인드C	1인칭	마인드C	작가 월과 부인 메리의 부부생활과 일상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8	마님이네 미국 시골집 이야기	마님	1인칭	마님	미국에서 생활 중인 작가 마님의 미국 시골집 생활과 가족 이야기	연재 중
9	개집사	고추참치	1인칭	고추참치	말티즈와 진도믹스 두 반려견과 함께 하는 집사이자 웹툰작가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0	과학고 생존일지	윤진빵	1인칭	윤진빵	과학고에 입학하기 위한 과정과 입학 후 학교 생활을 그려낸 작가 본인의 경험담	연재 중
11	위탁가족	조돌복	1인칭	조돌복	15년째 위탁가정을 운영하고 있는 작가의 실제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일상툰	연재 중
12	K학원 생존기	양아치	1인칭	양아치	학원 선생님이로 일하는 작가의 학원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3	초등생활 그림일기	은뜸지	1인칭	은뜸지	초등학생 자녀를 둔 작가의 가족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4	펫로스클럽	올드독	1인칭	올드독	2년 전, 반려견을 떠나보낸 작가가 다른 개들을 돌보며 느끼는 감정을 그린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5	고고밍밍고	밍밍고	1인칭	밍밍고	작가 본인의 일상에 병맛을 더해 그려낸 이야기	연재 중
16	덤벙덤벙 내인생	덤덤	1인칭	덤덤	성인 ADHD 진단을 받은 작가가 평범한 일상을 찾기 위해 치료받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연재 중
17	호호와 거난이	호호	1인칭	호호	작가 호호와 거난 커플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8	오늘은 뭐하고 놀까	햄김밥	1인칭	햄김밥	게임을 좋아하는 작가 햄김밥의 게이머 일상 이야기	연재 중
19	소심한 호랭이 코코	키몽	3인칭	코코	유치원생 코코의 유치원 적응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0	소소한 기행	쏘랑	1인칭	쏘랑	작가 쏘랑의 개그 일상 등을 그려낸 일상툰	연재 중
21	만두 생활기록부	만두	1인칭	만두	작가 만두의 유년기부터 지금까지 에피소드를 다룬 실화 기반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2	콩에서 새싹이!	숙희	1인칭	숙희	작가의 아이가 암진단을 받으며 겪은 병원에서의 일상을 그린 투병기	연재 중
23	시바, 만만치않다	상금	1인칭	상금	작가 상금이 보호소에서 데려온 반려견과의 일상을 그린 이야기	연재 중

24	봉구리 로큰롤	봉구	1인칭	봉구	시골 소녀인 작가 봉구의 학교생활과 우정을 그린 시골 일상 이야기	연재 중
25	어린이집 다니는 구나	구나	1인칭	구나	어린이집 선생님인 작가 구나의 어린이집 일상 이야기	25,8월 휴재
26	수영만화일기	해오	1인칭	해오	만화가지망생 작가 해오의 수영 강습과 관련된 일상 이야기	25,6월 휴재
27	늪이 사는 이야기 -계속되는 미미한 인생	늪	1인칭	늪	작가 늪의 사소한 일상 이야기	5월 연재종료
28	노곤하개	홍끼	1인칭	홍끼	작가 홍끼의 반려견과의 일상 이야기	6월 연재종료
29	크레이지 가드너	마일로	1인칭	마일로	작가 마일로가 식물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상 이야기	4월 연재종료
30	안녕, 나의 수집	하린	3인칭	무주	맥시멀리스트였던 주인공 무주가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며 겪은 일상 이야기	4월 연재종료
31	어느날 가슴이 커짐	물렁이	1인칭	물렁이	작가 본인이 병명미상의 질환을 겪으며 일어난 일상과 투병기	3월 연재종료
32	진돌히디만화	진돌/히디	1인칭	진돌/히디	부부 웹툰작가인 진돌과 히디의 생활을 그려낸 이야기	2월 연재종료
33	흔한 햄	잇선	3인칭	햄	주인공 캐릭터 햄의 감정과 일상을 담은 이야기	2월 연재종료
34	닥터앤닥터 병원일기	닥터베르	1인칭	닥터베르	공학박사 남편인 작가 베르와 아내 의사 안다 부부의 혈액암 투병기와 웹툰 작가 도전기	7월 연재종료

34개의 작품 중 31개의 작품이 1인칭 시점이며 3인칭 시점의 3개 작품인 <소심한 호랭이 코코>, <안녕, 나의 수집>, <흔한 햄>은 작가 본인이 아닌 특정 주인공을 설정하여 유치원 생활 및 미니멀리스트를 지향하는 과정, 캐릭터의 생활 및 우울증 등의 일상을 그려낸 작품이다. 즉 제 3의 인물을 창조하여 1인칭 일상툰과 같은 형태의 작품으로 창작한 것이다.

31개의 1인칭 작품은 작가 자신으로 캐릭터화하여 직접 등장시키며 작품의 화자이자 작가인 자신의 경험이나 감정, 체험 등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서사를 기록하고 재현적으로 표현하였다. 위와 같은 작품들은 모두 작가와 캐릭터 이름이 일치하였다. 이야기의 재현성이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장치 중 하나로 자연스럽게 작품 속 인물이 작가 자신으로 인식된다.

작가와 화자, 등장인물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한 <육아일기>, <유부감자>, <월 유 메리 미> 등의 작품은 작가가 자신의 경험한 바를 자전적인 시점으로 재현한다. 이러한 서사 형식을 통해 일상툰을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개인적 기억과 감정의 서사적 아카이브로 확장시킨다. 또한 1인칭의 화자인 ‘작가’가 직접 말한다라는 측면에서 감정 이입에 용이하여 작가에게 친밀함을 느끼게 하여

작가와 독자 간 정서적인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별거 아니겠지>, <어느 날 가슴이 커짐>, <공에서 새싹이!>와 같은 작가나 가족의 질병이나 불안감, 부정적 변화라는 비극적 소재를 다루는 작품을 1인칭 시점으로 다루는 작품은 공감과 위로라는 특수한 정서를 전달한다. 작가이자 화자가 자신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을 노출하여 웃음과 재미 외의 감정을 누출함으로써 ‘보통 사람’으로서 작가의 영역을 확장하고 몰입감을 유도한다. 일상툰 장르의 해시태그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작품이 ‘일상’과 더불어 ‘개그’ 또는 ‘힐링’ 등의 키워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만큼 웃음과 동일시의 편안한 감성을 유도한다. 그러나 투병기와 같은 해당 작품들은 또다른 공감의 방향성을 유도하며 연민의 마음과 함께 캐릭터에 몰입된다. 류유희는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웹툰 연구를 통해 사회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12]. 이러한 고통의 이야기, 비극적 이야기를 통해 작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독자들을 위로함과 동시에 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가진다.

<경경수의 개발만화>, <과학고 생존일지>, <K학원 생존기>, <어린이집 다니는 구나>, <닥터앤닥터 병원일기> 등과 같은 특정 직업군이나 생활상을 그리는 직업일상툰은 가족이나 감정 중심의 일상툰과는 다르게 노동환경 및 직업 정체성에 대한 공감을 더한다. 직업을 통해 화자의 일상을 인식하며 유머와 노동자로서의 자기풍자를 결합한다. 직업인으로서 작가와 화자의 경험이 독자들의 생활과 일치하며 화자의 개인적 서사가 사회적 관점으로 확장될 수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네이버웹툰의 ‘일상’ 장르에서 연재 중이거나 2025년 내 종료된 34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일상툰에서 구현되는 1인칭 시점의 서사 구조와 내러티브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특히 일상툰이 개인의 체험을 서사화하며 독자와의 감정적 교류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1인칭의 일상툰은 화자이자 작가이며 등장인물의 삶과 감정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며 스스로를 재현한다. 또한 사실의 진실성과 더불어 정서적 진정성을 확보하며 독자에게 공감과 신뢰를 형성한다. 이를 통해 사소해 보이는 일상을 서사화하여 보편적 감정과 공감으로 확장하는 일상툰만의 정서적 미학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25년에 연재된 네이버 웹툰의 일부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네이버 외의 플랫폼에도 다양한 일상툰이 연재되고 있으며 SNS에서도 일상툰이 제작되고 있으므로 해당 작품들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플랫폼 간 비교 연구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시점을 중심으로 한 텍스트 분석에 초점을 두어 독자 수용 및 반응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작가-독자 간 정서적 상호작용을 중요시하는 일상툰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조금 더 심도있는 연구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보완을 통해 일상툰 연구는 단순한 서사 분석을 넘어, 디지털 시대 개인의 감정 표현과 사회적 서사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새로운 미디어 연구의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References

- [1] KOCCA, “2024 Webtoon Industry Survey”,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NaJu, Jeonnam, Republic of Korea, KOCCA 24-39, December 2024.
- [2] J. W. Kim, “Study on Life webtoon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model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mics & Anim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ulture Art Content, Sejong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4.
- [3] S. Y. Im, N. H. Kim, “A Study on the Analysis of Design Characteristic in Webtoon Character”, 2007 Spring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Korean Design Society, May 25-26, 2007, Seoul, Korea, pp. 72-73.
- [4] J. O. Kim, “Webtoon Era, Cheerful Cartoon Resurrecting as Dailytoon”, kmas.or.kr, https://kmas.or.kr/webzin/e/cover/2093?utm_source=chatgpt.com, (accessed November 1, 2025).
- [5] C. G. Lyou, J. Y. Lee, “A Study on Theme of Self-Expressive Webtoon”,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no. 30, December 2013, pp. 117-147, doi: 110.18856/jpn.2013..30.004.
- [6] Y. J. Kim, “TA Study on the Popularization and Emotional Reproduction of Dailytoons”, Master's thesis,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16. [Online]. Available: <https://www.dcollection.net/handler/snu/000000133288>.
- [7] J. Y. Kim, “How does “our life” respond to “her life”? - The response of digital readers to female life cartoons -”, Writing Research, no. 58, September 2023, pp. 183-207, doi: 10.31565/korror.2023..58.006.
- [8] C. M. Sung, “The Effect of Narrative Point of View: Mediating Roles of Identification, Counterargument, and Optimistic Bias”, Master's thesis, Department of Communication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2023.
- [9] A. Graaf, H. Hoeken, J. Sanders, J. W. J. Beentjes, “Identification as a mechanism of narrative persuas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 39, no. 6, May 2012, pp. 802-823, doi: 10.1177/0093650211408594.
- [10] J. Y. Park, “The Representation of Violence in Ilsangtoon and The Ethics of Sympathy”, Feminism and Korean Literature, no. 57, December 2022, pp. 255-280, doi: 10.15686/fkl.2022..57.255.
- [11] K. H. Kim, “Narrative in the Slice-of-Life Genre and Self-Representation as Strategy-Focusing on Slice-of-Life Webtoons by Women”,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no. 48, November 2018, pp. 121-160, doi: 10.18856/jpn.2018.24.4.005.
- [12] Y. H. Ryu, “A Study on the Storytelling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Described by Webtoons in SNS”, The Korean Journal of Animation, vol. 17, no. 3, September 2021, pp. 100-112, doi: 10.51467/ASKO.2021.09.17.3.100.